

제1143호 2013.3.9~3.15

한일부 



주간 북한 동향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개황 | 대남동향 | 내부동향 | 대외동향
주요인물 동정 | 주간보도일지 | 금주의 약사

Weekly Report on North Korea



Contents

제1143호 2013.3.9~3.15

I 개황

1

II 대남동향

-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, 새 정부 우회적 비난2
- 조평통 서기국 보도, 당국자발언언론보도 관련 위협3

III 내부동향

- 김정은,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활쏘기 관람4
- 김정은, 군 관련 활동 동향5

IV 대외동향

- ‘외무성 대변인 성명’ 발표6
- 외무성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7

주요인물 동정

8

주간보도일지

12



금주의 약사

20



개황

대남동향

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, 새 정부 우회적 비난

- 北은 3월 13일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3군 합동임관식 축사를 인용하며 새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함. (3.13 중통)

조평통 서기국 보도, 당국자발언·언론보도 관련 위협

- 北은 3월 14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당국자 발언과 언론 보도를 비난하며 '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'이라고 위협함. (3.14 중통)

내부동향

김정은,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활쏘기 관람

- 김정은은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·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양궁 경기를 관람하였음.(3.9 중통)

김정은, 군 관련 활동 동향

- 김정은은 월내도 방어대 및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한데 이어,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포병들의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였음.(3.12·3.14 중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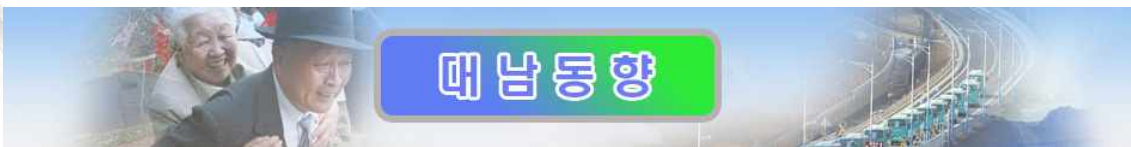
대외동향

'외무성 대변인 성명' 발표

- 북한은 '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'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음.(3.9 중통)

외무성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

-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'정전협정 백지화' 및 '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발언'과 관련하여 중통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음.(3.14 중통)



대남동향

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, 새 정부 우회적 비난

개요

- 北은 3월 13일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3군 합동임관식 축사를 인용하며 새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함. (3.13 중통)

주요내용

<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> (3.13 중통)

- 지난 3월 5일 최고사령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 단호한 결심을 내외에 천명함.
 - 그러나 3월 6일에는 괴뢰합동참모본부가 원점과 지원세력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응징할 것, 3월 8일에는 괴뢰국방부 대변인이 북정권을 지구상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폭언을 주저넘게 쫓아냄.
 - 국방부장관 내정된 김OO 역시 북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이라고 함부로 찾아냄.
- 괴뢰군부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마바람과 무관치 않음.
- 청와대안방에서는 그 무슨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청을 돌구면서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,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느니 하는 극히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음.
 - 문제는 이 모든 움직임이 키 리졸브, 독수리 핵전쟁연습의 본격적인 단계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 있음.
 - 이OO괴뢰정권의 풍지박산난 대결본세의 답습으로 민족의 귀중한 재보도 헤아릴줄 모르는 무지의 발로로밖에 달리 볼 수 없음.
- 핵을 가진 민족과 인민의 군대는 언제나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만을 이룩하고 나라의 강성과 안전을 가장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법
 - 반미대결전에서 우리가 찾은 피의 교훈임. 이 엄연한 진실을 외면한 채 핵무기를 포기 하라는 것이야말로 현실판단능력이 마비된 백치, 천지들의 망발
 - 남조선인민들과 괴뢰군장병들은 역적무리들에게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의로운 전면대결전에 호응하여 총부리를 괴뢰군부호전광들에게 돌려야 할 것
- 전시작전권마저 미국상전에게 내맡기고 장병들을 상전의 대포밥, 총알받이로 삼겨마치고 있는 남조선괴뢰군부호전광들의 추태를 더 이상 그래도 보고 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님.
 - 씨도없이 벌초해버릴 첫 번째 과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괴뢰군부호전광들을 선택한 것도 바로 그때문임.



조평통 서기국 보도, 당국자발언·언론보도 관련 위협

개 요

○ 北은 3월 14일 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당국자 발언과 언론 보도를 비난 하며 ‘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’이라고 위협함. (3.14 중통)

주요내용

< 조평통 서기국 보도 > (3.14 중통)

-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과 북남불가침 합의들을 전면백지화할 것이며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핵타격수단을 비롯하여 정교한 모든 타격수단들이 목표들을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느니, 협정과기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느니 하면서 도전
- 괴뢰당국자들과 어용매문가들은 연일 우리 중대조치에 대해 정전협정의 틀안에서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훈련이라고 생떼를 쓰고 있음.
-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는 미제와 괴뢰들에 의해 파기되고 사문화된지 오래.
- 미제와 괴뢰패당은 정전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이 채택발표된 순간부터 유린말살해온 장본인이며 주범.
- 특히 우리 공화국을 공격할 미국의 핵항공모함집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이 1년내내 돌아치고 있어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셔질 날이 없음.
- 그리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최대열점지역으로 한점의 불씨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침예한 핵 화약고로 됨.
- 괴뢰패당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헐박이요 심리적이요 하며 놀아대고 있음.
-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지난 시기처럼 말대 말의 대결로 오산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음.
- 도발자들은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며 침략자, 도발자들의 아성과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 것.



내부동향

김정은,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활쏘기 관람

개요

- 김정은은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·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양궁 경기를 관람하였음.(3.9 중통)

주요내용

□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

- 일시: 미상
- 동행: 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리영수·김영훈·량청송·마원춘·리종무
- 시찰 순서: 농구경기장 → 탁구경기장 → 역도경기장 → 식당 → 서산호텔
- 주요 내용
 - ‘청춘거리 체육촌’은 농구·배구·탁구 등 여러 체육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경기장과 식당·호텔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체육문화시설임.
 - 김정은은 ‘청춘거리 체육촌’을 개건·보수하는 것은 체육사업의 전환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하였음.
 - 김정은은 체육시설물 관리체계 확립, 경기장 운영·관리·보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였음.

□ 양궁 경기 관람

- 일시: 미상
- 동행: 최룡해·장성택·현영철·김격식·리영수·김영훈·리종무
- 주요 내용
 - 김정은은 양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기재를 마련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음.
 - 4·25 국방체육단과 압록강 국방체육단 간의 양궁 경기를 관람하였음.



김정은, 군 관련 활동 동향

개요

- 김정은은 월내도 방어대 및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한데 이어,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포병들의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였음.(3.12·3.14 중통)

주요내용

□ 월내도 방어대 시찰(3.12 중통)

- 일시: '13.3.11(월)
- 동행: 최룡해·김격식·김영철·박정천·림광일·안지용
- 주요 내용
 - 김정은은 제4군단 포병들에게 남한 6해병여단의 전과탐지초소, 포발견탐지기, '하푼'발사기지, 103mm방사포·155mm곡사포중대들에 대한 타격순서 등을 규정하였음.
 - 김정은은 남한 함선들의 군사분계선 해상수역 접근시 경고사격, 침범시 조준사격을 하는 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을 비준하였음.

□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 시찰(3.12 중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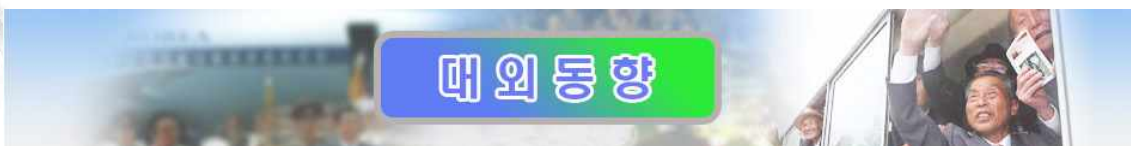
- 일시: '13.3.11(월)
- 동행: 최룡해·김격식·김영철·박정천·림광일·안지용
- 주요 내용
 - 김정은은 남한 6해병여단 본부·관하 해병대대들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립하였음.
 - 김정은은 구분대 군인들의 화력훈련을 지도하면서 사격준비시간을 평가하였음.

□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(3.12 중통)

- 일시: 미상
- 동행: 최룡해·현영철·현철해·박정천

□ 포병 실탄사격훈련 지도(3.14 중통)

- 일시: 미상
- 동행: 최룡해·현영철·김격식·박도춘·리영갈·손철주·김영철·박정천·림광일·리성국·리영래·김명남·안지용



‘외무성 대변인 성명’ 발표

개 요

- 북한은 ‘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’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음.(3.9 중통)

주요내용

- 3월 7일, 미국의 주도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‘3차 핵실험’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였음.
 - 이번 제재 결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용되었음.
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려던 북한을 핵실험으로 떠민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를 먼저 문제 삼았어야 했음.
 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섯 차례 ‘제재 결의’는 북한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·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.
-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이번 ‘제재 결의’를 규탄하며 전면 배격함.
- 세계는 미국이 ‘제재 결의’를 만들어낸 대가로 북한의 핵보유국·위성발사국의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지를 보게될 것임.



외무성 대변인,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

개요

-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'정전협정 백지화' 및 '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발언'과 관련하여 중통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였음.(3.14 중통)

주요내용

□ '정전협정' 관련, 외무성 대변인과 중통기자 문답

-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'정전협정은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만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없다'고 말하면서 북한의 초강경대응을 모면하려함.
-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,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임.
- 미국과 남한이 '키리졸브·독수리 연습'을 감행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유린·파기행위임.
- 한반도에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, 그 책임은 미국이 전적으로 져야할 것임.

□ '유엔사무총장 발언' 관련, 외무성 대변인과 중통기자 문답

- '유엔사무총장 반기문'이 미국의 대북 적대 행위를 옹호하며, 북한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언행을 하고 있음.
 - 이것은 그가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원칙을 잊고, 유엔회원국인 북한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행위에 편승하는 것임.
- 유엔사무총장이라면 그 직분에 맞게 중립성·공정성·객관성을 견지하여야함.



주요인물동정

김정은(당 제1비서)

- 미상 '선전 선동활동에서 모범'을 보인 선동원들(김덕교,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노동자 등)에게 '감사' 전달(3.10, 중방)
- 3.11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(3.12, 중통)
- 3.11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(3.12, 중통)
- 미상 용정양어장(황남 용연군/10.11.21 김정일과 既 방문) 현지지도(3.12, 중통)
- 미상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(3.12, 중방·중통)
- 미상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(3.14, 중·평방)
- 3.14 중국 시진핑(習近平)에게 '국가 주석·중앙군사위 주석 피선' 축전(3.14, 중통·중방)
- 3.14 미얀마·시리아·콩고·우간다 대통령의 '김정일 생일 71돌 축전'에 답전 발송(3.14, 중통)

김격식(인민무력부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김기남(당 중앙위 비서)

- 3.14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(3.14, 중통·중방)

김명남(미상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김승두(교육위 위원장·북-쿠바 단결위 위원장)

- 3.14 北-쿠바 단결위 연차회의(대동강외교단회관) 참석(3.14, 중통·평방)

김영남(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)

- 3.12 케냐 대통령 당선자 '우후루 무이가이 케니아타'에게 축전(3.13, 중통·중방)
- 3.14 시진핑과 장덕강(張德江, 全人代 상무위원장 피선)에게 축전(3.14, 중통·중방)



김영철(총참모부 정찰총국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김형준(외무성 부상)

- 3.14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주체 ‘혁명절(3.14)’ 즈음 연회(대동강외교단회관) 참석 (3.14,중통·중방)

리명산(무역성 부상)

- 3.14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주체 ‘혁명절(3.14)’ 즈음 연회(대동강외교단회관) 참석 (3.14,중통·중방)

리성국(미상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리영길(인민군 상장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리영래(인민군 중장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리중국(기계공업상)

- 3. 9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창립(3.10) 60돌 기념보고회 참석(3.10,중방)

림광일(인민군 중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
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문성모(외고단사업총국 총국장)

- 3.14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주체 '혁명절(3.14)' 즈음 연회(대동강외고단회관) 참석(3.14, 중통·중방)

박도준(당 중앙위 비서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박익준(외무상)

- 3.13 駐北세계식량계획 대표(디르크 슈테겐) 신임장 접수 및 담화(3.13, 중통)
- 3.13 신임 駐北 인도대사 '아제이 꾸마르 샤르마'와 담화(3.13, 중통)

박정천(인민군 중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미상 김정은,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시 수행(3.12, 중방·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서호원(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)

- 3.14 北-쿠바 단결쫘 연차회의(대동강외고단회관) 참석(3.14, 중통·평방)

손철주(인민군 상장)
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안지용(인민군 소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 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 중·평방)



양형섭(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)

- 3.14 駐北 新任 인도 대사와 담화(3.14,중통)

전승훈(내각 부총리)

- 3. 9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창립(3.10) 60돌 기념보고회 참석(3.10,중방)

최룡해(중정지국장)

- 3.11 김정은,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- 3.11 김정은,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시 수행(3.12,중통)
- 미상 김정은,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시 수행(3.12,중방·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최영림(내각 총리)

- 3.11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요해(3.11,중통)
- 3.12 몰타 수상에 선거된 '조세프 무스카트'에게 축전(3.13,중통·중방)
- 3.14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(3.14,중통·중방)
- 3.15 세포등관개건전투장(강원도 세포·평강·이천군 일대)·문천시 남창협동농장·안변군 비산협동농장·문평제련소 등 현지요해(3.15,중통)

최장식(보건상)

- 3.14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 주체 '혁명절(3.14)' 즈음 연회(대동강외교단회관) 참석(3.14,중통·중방)

태중수(함경남도당 책임비서)

- 3. 9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창립(3.10) 60돌 기념보고회 참석(3.10,중방)

현영철(인민군 총참모장)

- 미상 김정은,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시 수행(3.12,중방·중통)
- 미상 김정은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시 수행(3.14,중·평방)

현철해(인민무력부 제1부부장)

- 미상 김정은,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시 수행(3.12,중방·중통)



주간일지

대남동향

■ 3.9(토)

- 北 '조평통' 대변인, 3.9 중통 問答에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對北발언(3.8, 北 전면 도발시 정권교체나 정권붕괴로 대응할 것 등) 등에 대해 “사죄 및 첫 번째 별초대상이 될 것” 비난 위협(중통·중방)

■ 3.10(일)

-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및 정승조 합참의장의 對北발언(적도발시 즉각 응징 등) 관련 ‘일촉즉발의 현 정세 책임은 韓美에 있다고 재차 책임전가하며 ‘우리(北)식 성전의 된 맛을 특특히 보여줄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말망을 앞둔 역적무리의 마지막 발광)
- ‘키 리졸브·독수리연습’ 관련 ‘비참한 패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선택, ‘제2의 조선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韓美의 계획적 불장난’이라고 지속 비난(중통·노동신문/참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무모한 선택)
- 김용현 합참 작전부장 기자회견시 對北발언(도발시 지휘세력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 등) 관련 ‘독수리연습이야 말로 공공연한 도발’이라고 왜곡하며 ‘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극도로 자극하고 모독하는 고의적인 독설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’고 위협(중통·민주조선)
 - * 합참 작전부장의 ‘北의 지휘세력까지 응징’ 등 발언을 거론 ‘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 조국통일대진군에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’고 지속 위협(3.11,평방/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망동)

■ 3.11(월)

- 키 리졸브·독수리연습에 대응한 정전협정 파기는 응당한 자위권 행사, ‘적대세력과의 최후 결전에 정전이란 없으며 오직 韓美의 무조건 항복만이 있을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정전협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미국이다)
 - * ‘더는 피하기 힘들게 된 제2의 조선전쟁’, ‘백두산 총대의 선언, 최후승리는 우리의 것이다’, ‘조선은 지금 전시상태에 있다’ 등 題下로 ‘키 리졸브’ 군사연습 실시 비난(중통)
- ‘美와 추중세력은 정전협정 효력이 백지화된 한반도에서 北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민회할 수 없는 후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(중통·노동신문/자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조치는 정당하다)
- 유엔의 ‘北 인권조사기구 설치’ 관련 韓國의 적극적 동참을 거론하며 ‘동족을 해치기 위해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매국역적들에게 철추를 내릴 것’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교수대에 매달아야 할 인권범죄자)



■ 3.12(화)

- 【조평통, 대변인 성명(311)] ‘키 리졸브’ 군사연습 시작 관련 ‘△핵타격 수단을 포함한 모든 공격수단이 이미 격동상태 유지, △우리(北) 영토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벌초해 버릴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중방)
 - 지금 이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임.
-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對比발언(38 인사청문회, 北 전면 도발시 정권교체·정권붕괴로 대응 등)을 “최고준엄에 대한 도전으로 첫 번째 벌초대상”이라고 재차 위협(중통·노동신문/깨끗이 벌초해버려야 할 깡패무리)
- 【중통 논평] 류우익 前 통일부장관의 퇴임사(北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주민들을 학대하고 핵실험을 일삼고 있다 등) 및 재입시 ‘5.24조치·통일항아리’ 등 통일정책 추진 비난(중통/깨끗이 대역죄를 면할 수 없다)
- 南 전역에서 예비군훈련 실시(3411), 311 KBS방송 인용 비난(중통·평방)

■ 3.13(수)

- 【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(313)] 우리 軍의 ‘지휘세력 응징, 정권소멸’ 등 발언 거론 ‘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며 ‘무자비한 보복만 남았다고 위협(중통·중방·평방)
 -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, 북남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, 남은 것은 우리(北)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, 무자비한 보복행동뿐임.
- ‘키 리졸브·독수리 연습’에 의한 판문점대표부 활동중지조치는 ‘적대세력들의 준동을 짓밟기 위한 단호한 선택이었다’며 ‘대응타격시 청와대 지하실은 물론 美 본토도 무사할 수 없고 독특한 전쟁방식에 빼도 추리지 못할 것’이라고 지속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밟기 위해 단호한 선택)
 - * ‘키 리졸브·독수리 연습’ 관련 ‘최악의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자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’며 ‘절대 빈말을 하지 않는다’고 위협(노동신문·평방/무주고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)
 - * 北, 해병대 청룡부대의 강화군 김포시 일대 종합훈련계획(3.13~15) 비난(중통·중방)
 - * 총련 중앙단체 간부들, 3.11 ‘키 리졸브·독수리 연습’ 규탄 담화 발표(평방)
- 【중통 논평] ‘서울 도심에서의 美軍 난동(32)’사건 거론 ‘南 인민들에 대한 극도의 민족멸사사상과 오만과 강권이 낳은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‘미군을 몰아내고 친미시대미국노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’ 선동(중통/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불행과 재난의 화근)
- 류우익 前 통일부 장관 퇴임사(311) 거론 ‘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죄를 조금이나마 가림으로써 대결정책에 적극 추종해 날뛰다 종말을 고하게 된 가련한 처지를 모면해 보자는 것’이라고 재차 비난(평방/정치총장의 역겨운 악담)

■ 3.14(목)

- 北 「조평통」 서기국 보도 제1022호(314), 우리 당국자들과 언론들의 ‘北 정전협정 백지화’ 등 관련 對比발언·보도(단호히 대응·심리전 등)에 대해 “임의의 순간에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”이라고 위협(중통)



■ 3.15(금)

- 【중통 논평】 최근 ‘北 인터넷 봉사기지들에 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고 ‘키 리졸브 합동군사 연습’의 ‘사이버공격 제기 및 ‘미국과 추종세력들 책임’ 왜곡 주장(중통/너절하고 비열한 행위)
- 「조평통」 서기국 보도 제1023호(3.15), ‘진보세력의 對北제재와 합동군사연습 중지 요구를 옹호하며 새누리당 등 보수패당은 무분별한 전쟁연습과 비열한 중북소동을 중단해야 한다’고 비난(중통·중방)
- 조선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(3.15), 李 前 대통령 고발사건을 거론하며 ‘지난 5년간 불법무법의 악행을 일삼아 온 역도와 족속들을 법적 심판대에 끌어내 처형해야 한다’고 비난(중통·중방)
-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든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韓美의 무분별한 反北대결광풍이 몰아온 것, ‘미국과의 전면대결전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반드시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할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사설, 모든 것은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)
- 류우익 前 통일부장관의 퇴임사(잘못된 길, 실질적 통일준비 등) 거론, ‘통일을 바라는 거래의 가슴에 한을 남긴 역도를 준엄한 심판대에 매달고야 말 것’이라고 비난(중통·노동신문/대결 닳두리는 무덤속이나 가지고 가라)

내부동향

■ 3.9(토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활쏘기경기 관람(중통·중방)
 - 최룡해, 장성택, 현영철, 김격식, 리영수, 김영훈, 량청송, 마원춘, 리종무 동행
 - 日本 지휘자(이노우에 미치요찌)가 지휘하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, 38 인민극장에서 진행(중통)
 - “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버지게 되어 있다”며 ‘北 軍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’ 등 강조 및 “천만국민이여 정의를 위한 전면 대결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”고 ‘對美 결전 선동(평방/정의를 위하여, 승리를 위하여)
 - * ‘北 軍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’ 지지 평안남도·자강도·함경북도 군민대회, 3.9 각각 진행(중통·중방)
 - * ‘박미성·한금룡·류만길(법률전문가 등), UN안보리의 ‘對北 추가 제재결의’를 ‘자주권 침해·공정성 유린으로 철회’ 주장 등 ‘UN 안보리와 미국 등 이사국들’ 비난(중통)
 - 김금옥(제14차 아시아마라톤선수권대회 우승, 425체육단) 선수와 김일승 감독에게 ‘인민체육인칭호’ 수여 최고인민회의 ‘정령(3.8)’ 발표(중통·중방)
- 【주요인물 동정】
- 北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대표단(대표: 정성찬 부총국장), 3.9 라오스 항발(중통·평방)
 - 일본 지휘자 ‘이노우에 미치요시’ 일행, 3.9 귀국(중통·평방)



■ 3.10(일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'선전 선동활동에서 모범'을 보인 선동원들(김덕교,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노동자 등)에게 '감사' 전달(중방)
-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창립(3.10) 60돌 기념보고회, 3.9 태중수(咸興道黨 책임비서)·전승훈(내각 부총리)·리종국(기계공업상) 등 참가下 진행(중방)
- 평북 황남도, 3.10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지지 군민대회 진행(중통)
- 北, 전승혁명사적지 원상복구사업 전개(중방)
- 北, 2.28 ~ 3.7 창작가들의 기량작품 전시회 개최(중방)
- 황북 강남군 일꾼들과 근로자들, 앞그루 밀보리 씨뿌리기 투쟁 주력(중방)

■ 3.11(월)

- 함경북도, 3.10 '왕재산회의' 80돌 기념 보고회 온성군에서 진행(중방)
-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지지 황북 함남·남포시 軍民대회, 3.11 진행(중통)
 - * '조선인민군·노동적위군·붉은청년근위대 등 각계층이 만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 최고사령부 최후 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다' 전쟁열 고취(중통·노동신문)
- 최영립(내각총리),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요해(중통)
- 김일성 생일(4.15) 즈음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(3.1~4월 초),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 경기장에서 진행中(중통)
- 北, 적십자국제위원회 창립 150돌 기념우표(개별우표 1종) 발행(중통)
 - 北 적십자회는 '46.10.18 창립, '56.5.11 국제적십자연맹에 가입

■ 3.12(화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11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(중통)
 - 최룡해, 김격식, 김영철, 박정천, 림광일, 안지용 동행
 - 적함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,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 사격을 가할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 비준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11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(중통)
 - 백령도의 적들이 움찔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여단 본부와 관하 해병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할데 대한 임무 수립(동행인 동일)
 - * 김정은, 용정양어장(황남 용연군/10.11.21 김정일과 旣 방문) 현지지도(중통)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(중방·중통)
 - 최룡해, 현영철, 현철해, 박정천 등 수행 관람
- "온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분노심이 용암처럼 끓어 번지고 있다"고 호언 및 畵民은 "전면 대결전에서 조선의 본패와 기개를 다시금 힘있게 펼치자"고 선동(평방/정론, 강경에는 초강경으로)
 - * '北 軍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' 지지 강원도·양강도·나선시 군민대회, 3.12 각각 진행(중통·중방)



- * 박광성·황영철 등 평양시 중구역 노동적위대 대원들의 ‘北 軍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지지 및 전투훈련 박차’ 등 “총결산 의지” 반향(중통)
- * 정혁·백민철(군관) 등, ‘김정은 월내도방어대 시찰’ 반향(중통·평방)
- 지난 10일 평양시 중학교졸업반 학생들의 국방체육경기에서 “조국보위성전에서 자기들도 한몫 단단히 할 의지를 보여줬다”고 과시(중통)
- 北 ‘유용동물보호월간(3-7월) 즈음 ‘전국적으로 유용동물들 보호증식 사업 활발히’ 진행(중통)

■ 3.13(수)

- 北 ‘핵보유국이 됨으로써 미국과도 당당히 맞서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반제반미대결전도 더욱 드세차게 벌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 및 ‘자위적 핵억제력은 김일성민족, 김정일조선의 재일가는 재부’라고 강조(중통·노동신문/핵억제력은 강위력한 자위의 보검)
 -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지지 市郡 군민대회들 연이어 진행(중통)
 - 개성시, 함북 어랑군, 자강도 룡림군, 평북 정수시, 황남 강령군 등
 - * 평양시 20여만 명 등 各地 청년학생들, 인민군대 복대·탄원(중통·평방)
 - 전국 경공업대회 참가자들, 3.13 평양 도착(중통)
 -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전국경공업대회를 성대하게 소집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다고 보도
 - 박익춘(외무상), 3.13 駐北세계식량계획 대표(디르크 슈테젠) 신임장 접수 및 담화(중통)
 - * 박익춘, 3.13 신임 駐北 인도대사 ‘아제이 꾸마르 샤르마’와 담화(중통)
 -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,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세계를 반영한 ‘시’ 작품들 창작(중통)
 - 조선의 분노는 폭발하였다, 선군조선은 선언하였다, 총결산하자 등
- 【주요인물 동정】
- 김영남, 3.12 케냐 대통령 당선자 ‘우후루 무이가이 케니아타’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 - 최영림, 3.12 몰타 수상에 선거된 ‘조세프 무스카트’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
■ 3.14(목)

- 김정은 黨 제1비서, 연평도·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 사격훈련 지도(중방·평방)
 - 최룡해, 현영철, 김격식, 박도춘, 리영길, 손철주, 김영철, 박정천, 림광일, 리성국, 리영래, 김명남, 안지용 동행
- 김정은 黨 제1비서, 3.14 중국 시진핑(習近平)에게 ‘국가 주석·중앙군사위 주석 피선(全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)’ 축전(중통·중방)
 - * 김영남도 3.14 시진핑과 장덕강(張德江, 全人代 상무위원장 피선)에게 축전(중통·중방)
 - * 北,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1차 회의(3.3~12, 베이징 인민대학습당) 소식 보도(중방)
- 김정은 黨 제1비서, 미얀마·시리아·콩고·우간다 대통령의 ‘김정일 생일 71돌 축전에 답전 발송(중통)



- 現 정세에 대처하여 畵民 ‘△김정은 두리에 일심단결 및 결사옹위, △1950년대 조국수호정신 계승 및 김정은 명령 결사관철, △생산과 건설 힘있게 추진·증산과 절약투쟁, △사상교양사업 강화’ 등 주문(평방/사설,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)
- “선군정치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북침광란을 짓부셔버리는 무적의 힘”이라고 ‘선군정치·총대 강조 및 “선군정치가 있는 한 승리의 역사는 영원하다”고 호도(중통·노동신문/북침전쟁 평판을 짓부시는 무적의 힘)
- ‘北軍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’ 지지 문천시 및 은율·승호·중화·세포·함주·신평·곡산군 등 市·郡 군민대회 각각 진행(중통·중방)
- 최영림·김기남 등 黨·국가 책임일꾼들, 3.14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(중통·중방)
 - *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, 3.14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·김정일父子 동상에 헌화(중통·중방)
 -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(3대혁명전시관, 14만 2,000여점 출품)도 참관
- 黃南·平北 등 각지 농촌들에서 봄밀·보리 파종 한창 진행(중통)
- 공업용컴퓨터 ‘노을(5.7in·10.4in, ‘노을기술합작회사’ 제작)의 김책체철연합기업소 등 단위들의 “생산공정 현대화 기여” 선전(중통)
- 양형섭, 3.14 駐北 新任 인도 대사와 담화(중통)
- 北-쿠바 단결委 연차회의, 3.14 김승두(교육委 위원장·北-쿠바 단결委 위원장)·서호원(대외문화연락委 부위원장) 등 참가下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(중통·평방)
- 駐北 리비아경제협조사무소에서 3.14 최창식(보건상)·김형준·리명산(외무성·무역성 부상)·문성모(외교단 사업총국 총국장) 등 초대下 ‘혁명절(3.14)’ 즈음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(중통·중방)

■ 3.15(금)

- 최영림(내각총리), 세포등관개건설투쟁(강원도 세포·평강·이천군 일대)·문천시 남창협동농장·안변군 비산협동농장·문평제련소 등 현지요해(중통)
- 전체 黨 근로단체조직들, ‘모든 사업을 전진태세로 전환하고 유사시 수뇌부 결사옹위 정신을 발휘하도록 정치사업을 총집중하고 있다’고 선동(평방)
- 제28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, 3.12~15 진행(중통)
- 전국 경공업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3.8국제부녀절 기념 은하수 음악회, 3.15 인민극장에서 진행(중통)
-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시작(‘74.3월) 이후 ‘현재까지 50만여명이 학생소년들이 행군에 참가 선전(중통)

대외동향

■ 3.9(토)

- 【외무성 대변인 성명(38)】 유엔 안보리의 ‘제3차 핵실험에 대한 對北제재 결의를 전면배격하며 핵보유국 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중방)



- **【중통 논평】** 일본과 EU의 UN 인권이사회에서 ‘北 인권 조사기구’ 설립 추진에 대해 “주권국가에 대한 침해행위”라며 ‘일본과 EU는 인권상황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’고 비난(중통/인권유린 왕초들의 주재님은 짓)
 - * 일본 정부의 ‘다게시마의 날(2.22)’ 행사時 정부대표 파견 등 “독도강탈 책동” 비난 및 ‘고노담화 재검토기도 및 군국주의 고조·군사대국화 박차’ 지속 지적 경고(3.10,평방/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외침략 야망의 분출)
- 미국의 ‘키 리졸브·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“어리석은 자살행위로 진짜전쟁은 우리(北)와 하게 될 것”이라고 ‘對美 전면대결전 진입상태’ 지속 강조(중통·민주조선/미국은 조선에게서 자비를 바라지 말라)
 - * 미국의 ‘北 3차 핵실험’ 지적(北 위협론·나쁜 선택) 관련 ‘우리(北)를 깎아내리고 對北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불순한 목적’이라며 ‘미국의 反北정책 철회 및 北 軍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’ 강조(평방/핵전쟁 광신자들의 위협타령)
- 中(신화통신 등)·리·美·日·英·태국의 통신·방송 등, 38 김정은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시찰 소식 보도(중통·중방)

■ 3.10(일)

- 對北 제재결의 관련 ‘악랄한 제재책동과 반공화국 군사적 압살책동은 미제의 상투적 침략수법’이라며 ‘강경에는 초강경, 새로운 적대행위에는 제2, 제3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리적 대응조치로 대담할 것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다)

■ 3.11(월)

- 美 주도하에 실행된 안보리 對北제재 결의는 선전포고이자 전쟁행위, ‘핵보유국 위성발사국의 존엄과 지위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’이라고 위협 지속(중통·노동신문/반공화국 제재는 곧 전쟁행위이다)
 - * ‘美와 안보리는 한반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’이라고 전기(중통·노동신문/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지게 될 것이다)

■ 3.12(화)

- 김정은 黨 제비서에게 39 ‘아꼬브 짜호노비치 노비첸코 유가족들이 감사 편지’(중통)
- 現 정세와 관련 ‘우리(北)는 오늘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미국에 맞서나가고 있다’며 ‘미국은 현실 직시, 對北정책 수정 등(핵전쟁연습들 중지, UN 안보리 추가 對北 제재결의 사죄)’ 요구(중통·노동신문/자주권 수호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)
 - * 20년전(93.3.12) ‘北 NPT 탈퇴선언’ 관련 ‘지난 20년간 미국의 反北정책이 결국은 北의 핵미사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’며 ‘미국이 오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反北정책 철회 외에 길이 없다’고 주장(중통/20년전과 오늘: 미국이 새겨야 할 교훈)
- 日 外相 발언(일조 평양선언에 기초하여 납치문제 등 해결)은 ‘反北정책에 환장한 자들만의 황당무계한 꾀변’이라며 일본의 ‘북-일 평양선언의 기본정신인 과거청산 인식·이행’ 촉구(중통·노동신문·평방/조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을 오도하지 말라)
 - * 최근 日 外相의 ‘독도영유권’ 주장에 대해서도 ‘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독도강탈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현실화, 노골화되는 것’이라고 경고(중통·민주조선/일본반동들의 독도강탈책동)



- 北 박영희·양설희 선수, 제2회 쿠웨이트 추장명칭 ‘그랜드상’ 국제사격경기(40개 나라·지역 430여명 참가) ‘날치기참호대(트랩)’ 여자개인경기에서 은메달·동메달 쟁취 및 3.12 귀환(중통·중방)

■ 3.13(수)

- 對北 제재결의에 대한 미국 등의 발언을 거론 ‘제재결의는 자주권을 강탈,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모략과 흥정의 더러운 산물’이라며 ‘용납할 수 없는 범죄문서로서 제재에 천백배의 복수 전으로 대답할 것’이라고 再次 위협(노동신문·평방/그 어떤 제재책동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)

■ 3.14(목)

- 北 외무성 대변인, 3.14 중통 問答을 통해 “정전협정은 어느 일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 백지화 된다”고 주장하며 ‘韓·美의 北 정전협정 백지화선언(3.5) 不容’ 반박 및 미국에 책임 전가 위협(중통·중방)
- 北 외무성 대변인, 3.14 유엔 사무총장(반기문)의 ‘北 핵실험’ 등 지적(2.14·12 핵프로그램 포기·유엔 제재 결의 위반)을 ‘北 험담을 일삼고 있다’며 “그 직분에 맞게 중립성, 공정성, 객관성 견지” 주장 중통 問答(중통)
- 現 한반도 정세와 관련 ‘미국의 對北 적대시정책에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’며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‘反北 책동에 혁명적공세·혁명전쟁으로 대답하는 것이 北의 전투적 기질’이라고 위협(중통·노동신문/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)
 - * 【중통 논평】 “우리(北)의 핵보유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공갈을 일삼던 시대가 끝장났다는 것을 세계에 명백히 보여준 것”이라고 왜곡 및 ‘핵보유’ 지속 과시(중통/핵독점시대는 끝장났다)
- 중국보도사 및 신화통신·러·日·美 등 통신·방송, 3.13-14 ‘北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’ 보도(중통·중방)

■ 3.15(금)

- ‘미국은 안보리의 對北제재, 키 리졸브 훈련 등 무모한 反北적대시정책이 몰아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계망동하지 말라’고 연일 비난(중통·노동신문/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은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)
 - * ‘現 한반도 위기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의 산물’이라며 책임 전가(중통/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 미국)



금주(3.9~3.15)의 略史

- 03.09 : 사회과학원 신설('64년)
- 03.09 : 아시아경기연맹 가입('74년)
- 03.09 :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 발족('95년)
- 03.11 : 철도절 제정('63년)
- 03.11 : '왕재산 회의' 기념일('33년)
※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주장(함북 온성 지역)
- 03.12 : 핵확산금지조약(NPT) 탈퇴 성명발표('93년)
※ NPT 탈퇴 보류 발표(6.11.)
- 03.13 : 남북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제1차 회의 개최('92년, 판문점)
※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'남북불가침' 부문 실천방안 협의
- 03.14 :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제7차 대표접촉('92년, 판문점)
※ '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' 가서명
- 03.15 : 인민군 중대장중대정치지도원 대회 개최('95.3.15.~16.)
- 03.15 : 분단이후 최초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('01년, 판문점)